

## 여성 인물의 운명과 소설 공간의 위계 - 「심문」과 「무진기행」의 비교 분석 -

최성윤\*

### 요약

본 논문은 최명익의 1939년 작 「심문」과 김승옥의 1964년 작 「무진기행」을 비교하면서, 각 작품에 나타난 서술자의 성격, 여성 인물의 운명, 소설 공간의 위계적 특성을 살펴본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위와 관련된 공통 점들을 기준으로 두 작품이 형성하는 텍스트의 계보적 질서를 밝히려 했다.

두 작품은 경제인적 성격의 소극적 남성 서술자를 내세웠다. 양쪽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비극적 운명에 개입하는 대신 전락과 좌절의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여성 인물이 지닌 욕망의 허구성이다. 여육과 인숙은 명일과 희종을 통해 조선과 서울을 욕망한다. 그러나 남성 인물은 물론 대안적 공간 또한 모두 ‘지금과는 다른 삶’이라는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을 매개하는 존재일 뿐이라는 점에서 “나비부인”을 방불케 하는 비극은 필연적인 숙명이다.

「무진기행」이 보여 주는 인숙의 절망은 당대 우리 국민의 집단무의식에 가까운 서울 지향의 욕망에 대해 재고하고 성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심문」의 여육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극적 숙명은 동북아 질서의 일부분에 불과한 만주와 조선의 이항대립적 인식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식민 본국인 일본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만주와 조선의 비대칭적 위계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다.

\* 상지대학교 조교수

주제어: 최명익, 김승옥, 「심문」, 「무진기행」, 「나비부인」, 공간의 위계, 텍스트의 계보

## 목차

1. 서론
2. 경계인의 의식과 불안한 여로
3. 일탈의 공간 속에서 재현되는 숙명
4. 결론

## 1. 서론

최명익, 「심문」(『문장』, 1939.6)은 식민지 지식인 ‘김명일’을 1인칭 화자로 설정하여 그의 눈에 비친 시대와 세태, 그 속을 살아가고 있는 인물들의 형상을 섬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작품이다. 하얼빈(만주)이라는 문제적 공간을 배경으로 삼고, 평범한 일상을 가지지 못한 인물들을 내세워, 운명이라고 불러도 좋을 환경과 조건에 처하여 고투하거나 전략해 가는 모습을 냉정한 필치로 그려냈다. 작가의 혹은 작품 내의 목소리가 이처럼 인물의 처지에 경도되지 않고 침착함을 고수하는 것은 결코 적극적이라 할 수 없는 화자의 성격, 선택의 기로에 선 경계인적 입지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는 가설에서 본 연구는 시작된다. 어느 쪽에도 쉽게 투족하지 못하는 1인칭 화자의 눈은 조선과 만주, 혹은 그 속에서의 삶의 성격을 인물의 모습에 투영시켜 저울 양쪽 접시에 올려놓은 듯이 관찰하는 것이다.

한편 김승옥의 「무진기행」(『사상계』, 1964.10)은 출세한 시골 수재 ‘윤희중’을 1인칭 화자로 삼고 있다. 희중의, 고향 무진에서의 짧은 체류기간 동안을 소설의 시공간적 배경으로 삼았다. 「심문」의

만주가 퇴폐적 향락 혹은 전략의 도시로 그려지고 있듯이 『무진기행』의 무진 또한 건전한 생활의 공간은 아니다. 그곳에서 만난 세무서장 조, 교사 박, 그리고 하인숙 등의 인물군상은 회중에게 경멸 혹은 연민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회중은 그들의 삶에 동정적 태도를 보이려 하지 않는 동시에 불화와 갈등을 촉발하지도 않는다. 『심문』의 명일과 마찬가지로 『무진기행』의 회중 또한 일종의 경계에선, 냉소적인 인물이기 때문이다. 명일이 ‘조선’이라는 저울추로 ‘만주’를 가늠해보고 있듯이, 회중에게 기준이 되는 저울추는 ‘서울’이며 계량되는 대상은 ‘무진’이다.

『심문』과 『무진기행』의 닮은 점은 이외에도 여럿 거론될 수 있다. 방문기 혹은 여행기로서의 성격, 카오스를 방불케 하는 공간에 압도되어 버린 듯 끝내 헤어나지 못하는 여주인공의 모습 등이 제일 먼저, 쉽게 눈에 띄는 두 작품의 유사점이다.

본 논문은 두 작품의 남성 인물과 여성 인물의 관계와 함께 ‘조선과 만주’, ‘서울과 무진’이라는 공간의 비대칭적 질서의 당대적 의미와 그것에 관련된 작가의 현실 인식을 고찰한다.<sup>1)</sup> 그간 『무진기행』의 경우, 위에서 말한 공간을 주안점으로 한 선행 연구가 어느 정도 축적되었는데, 양측의 차별적 성격을 대조하여 ‘서울(도시)와 시골’, ‘현실과 환상’, ‘일상성과 비일상성’, ‘지배적 중심과 종속적 주변’ 등으로 의미를 규정하고 있다.<sup>2)</sup> 이에 비해 『심문』에 대해서는 상대적

1) 필자는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현대소설 연구』 55, 2014, 153-176면)에서 『심문』의 등장인물 간의 관계와 공간에 관한 인식이 입체적으로 조직되었음을 고찰한 바 있다. 해당 논문의 인물 구도 고찰에서 ‘명일-여옥’의 관계 부분을 특화하고 『무진기행』의 ‘회중-인숙’ 관계도와 비교하는 작업이 이 글의 우선적인 수행 과제가 된다.

2) 1966년 『현대문학』에 발표된 김현의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과지성사, 1991), 명형대의 『무진기행의 환상적 공간구조』(『한국문학논총』 3, 1980), 황국명의 『여로형 소설의 지형학적 논리 연구』(『문창어문논집』 37, 2000) 그리고 최근 박산향의 『『무진기행』의 체험공간과 장소정체성』(『한어문교육』 32, 2015)까지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궁극적

으로 ‘만주와 조선’이라는 이항 대립적 분석보다는 ‘만주’ 공간의 당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이 주로 진행되었다.<sup>3)</sup> 본 논문에서는 앞서 지적한 두 작품의 유사점들을 기준으로 삼아 1930년대와 1960년대라는 시기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우연히’ 형성된 ‘텍스트의 계보’를 살피려 한다.<sup>4)</sup> 이 과정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인물의 성격과 그들의 모습에 투영된 공간의 성격, 그리고 그것들에 내포된 위계적 질서와 작가의 현실 인식이다.

## 2. 경계인의 의식과 불안한 여로

### 1) 식민지 지식인 명일과 하얼빈행

『심문』의 화자 명일은 특별한 일 없이 하얼빈으로 간다. 작품의 서두는 거의 10페이지의 분량을 할애하여 하얼빈으로 향하는 열차 안에서 두서없이 전개되는 명일의 심리를 서술한다. 하얼빈으로 가

으로는 『무진기행』의 배경인 무진을 서울과 대조되는 장소로 파악하고 있다.

- 3) 이와 관련하여 정호웅의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 공간』(『문학교육학』 7, 2001)과 정종현의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으로』(『한국문학연구』 28, 2005) 등의 논문을 참조할 수 있다.
- 4) 이 논문 역시 “작가 중심의 계보학이 아닌, 단위 텍스트가 만들어낸 마치 우연과도 같은 맥락의 지점을 탐색하는 작업”의 일환이다. “한국 근·현대소설 연구의 장이 거느리고 있는 대상 작품들은 100년 정도의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묶여 있고, 작가와 평자 및 독자를 막론하고 그 한 세기의 자장 속에서 상호 교류하고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단위 텍스트 간의 친연성 및 상호텍스트성 즉 텍스트의 계보는 얼마든지 새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이는 기준에 밝혀지고 해석된 작가론적 친연성 즉 작가론적 계보와는 전혀 무관할 수도 있다.”(최성운, 『소설 교육과 텍스트의 계보 - 『쾌배자의 무덤』과 『별사』 함께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54, 2013, 357면) 몇 편의 선행연구에 더하여 이번의 연구는 그것으로써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찾아질 제3, 제4의 텍스트와 계보학적 질서의 구성을 도모하는 기초작업이다.

는 명확한 이유를 자신조차 요령 있게 납득하지 못하기에, 언뜻언뜻 떠오르는 상념과 가깝고 먼 기억의 조각들은 열차 안팎의 풍경과 뒤섞여 캔버스 위에 달라붙지 않는 물감과 기름처럼 흐르고 있다.

여행의 동기는, 명목상으로는 친구 이군의 초청에 의한 것이지만, 그와의 만남은 이내 부차적인 의미로 격하된다. 이군에 의해 지난 날 연인이었던 여옥의 소식을 듣게 된 때문인데, 하얼빈으로 가면 그녀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혹은 예감은 불길한 것이었던 숙명적인 것이었던 마침내 실현되고 말리라는 것을 명일은 이미 알고 있었다.

할빈-

내 이번 여행은, 앞서도 한 말이지만 역시 전과 다름없는 방랑이라 어떤 기대를 갖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이같이 우울한 여행일 줄은 몰랐다. 가는 차중에서 일종의 모험이니 무서운 숙명과의 음모니 하여 즐겨 꿈인 망상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었고, 어김없이 들어맞은 예감이었던 것이다.

물론 할빈서 李君을 만났고, 그의 십 년 풍상과 지금의 성공과 사업과 장차의 경륜을 듣고 보아 의지의 인 李君을 탄복하고 축하하는 바이지만, 나의 이 여행기는, 그런 건전하고 명량한 기록은 아니다. 내가 치우쳐 침울한 이야기만을 즐겨 한다거나 이야기로서의 소설적 흥미와 효과만을 탐내 그런 것은 물론 아니다. 「李君의 성공담」은 이야기의 주인공 격인 「나」라는 나와는 별개의 것이 되고 말았으리만치 이 할빈서 나는 나와 너무나 관련이 깊은 사건에 붓들리고 말았으므로 우선 그 이야기를 할 밖에 없는 것이다. 그것은 물론 如玉이의 이야기다<sup>5)</sup>

일종의 시치미 떼기에 해당하는 명일의 위와 같은 경위 설명은

5) 최명익, 「심문」, 『문장』, 1939.6, 13-14면. 이하 「심문」의 작품 인용은 작품명과 해당 지면의 페이지 수만을 적는다.

작품의 화자가 지닌 성격을 가감 없이 보여준다. 그 무엇도 쉽게 단정해 버리지 않으려는, 어쩌면 우유부단하고 아니면 신중한 그의 성격은 매사에 있어 판단 유보적 태도와 언행으로 드러난다. 옛 여인을 만나는 일을 두고 특별히 그것을 위해 길을 떠난 것은 아니라고 하거나, 행선지에 당도해서도 결국 친구에 의해 등을 떠밀리듯 만나게 되었다는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여옥을 처음 만나고 그냥 헤어진 것이 아니라 다시 약속 시간을 잡게 된 것도 친구 이군의 강권에 의해서이고, 마지못한 듯 여옥의 거처를 찾아가게 된 이유도 여옥 자신이 주소와 약도를 건네주었기 때문이라는 식이다.

그래서 나 역시 정한 시간에 如玉이를 찾아가기로 하였다. (독자 중에는 이 「그래서 나 역시……」라는 말에 불쾌를 느끼고, 그만 것을 동기나 이유로 행동하는 나를 경멸하는 이가 있을른지 모를 것이다. 사실은 나는 그러한 독자를 상대로 이 여행기를 쓰는 것이다.) 그때 내게는 굳이 如玉이를 찾지 않고 말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sup>6)</sup>

위 내적 독백에서 서술자 명일은 ‘여옥을 찾기로 함’, ‘여옥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의미의 두 문장을 인과 관계의 틀 안에 배치하고 있다. 특별히 여옥을 찾을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여옥을 찾지 않을 이유가 없어서이다. 괄호 안의 문장들은 조금 더 도발적인데, 누군가 여옥을 찾기로 했으므로 “나 역시” 그리하겠다는 자신의 태도를 굳이 들추고, 텍스트 바깥의 독자에게 이야기를 건다. 능동적이거나 주체적이라고 볼 수 없는 판단과 행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독자가 있을 터인데, 이 여행기(소설)은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발화이며, 따라서 그런 독자가 없다면 이러한 소설 쓰기

6) 『심문』, 16면.

는 무용한 것이라는 의미로도 읽힐 수 있다.

말하자면 이 소설(여행기)은 ‘왜 핑계 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행위로서의 글쓰기이다. 이 질문은 표현 그대로 서술자가 서술의 현재 시점에서 예상한 독자의 질문일 수도 있지만, 쉽게는 설명할 수 없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추하며 스스로 그 의미를 묻는 것이기도 하다.

소설이 현재형 문장의 ‘재현’ 형식이 아니라 과거형 문장의 ‘서술’ 형식을 지닌다는 것은 서술자가 처음부터 전체 텍스트가 거느리는 서사 정보를 모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야기한다는 뜻이다. 평일이 우연한 여행을 빙자하여 여옥의 이야기를 풀어내는 것은 독자와 함께 사건의 자초지종을 탐색하는 과정이 아니라 한 번 겪었던 일을 복기하며 그 의미를 반추하고 규정하려는 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그래서 기차 안의 풍경과 인상을 담은 소설의 서두 부분은 의미 심장하다. 처음의 여행에서는 무슨 의미인지 생각지 못하고 그냥 흘러버렸을 수 있는, 그러나 지난 시점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 과연 그것이 조만간 닥칠 일의 복선이었음을 알게 되는 에피소드이다.

무사히 세관을 치르고 국경을 넘은 나는 식당으로 갔다. 대 만원인 식당에 겨우 자리를 얻은 나는 첫눈에도 근엄하달 수밖에 없는 어떤 중년 여사와 마주앉게 되었다. 歌手 미우라의 체격에 修女 비슷한 양장을 한 그 중년 여사는 국방색 안경알 위로, 연방 기우리는 나의 맥주잔을 이따금 넘겨다보는 것이었다.<sup>7)</sup>

애욕 때문이랄까! 복잡한 심리적 암투를 하다가 다라난 如玉이가 있는 곳이라 생각하면, 이국적 호기심을 만족할 수 있고, 옛 친구를 만나는 기쁨만이 기다리는 할빈이 아니요, 혹시

7) 『심문』, 6면.

어떤 음울한 숙명까지도 나를 노리고 있을 것같이 생각되는 것이다. 숙명이란 이렇다 할 원인이 없는 결과만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이다. 원인이 있다드라도, 지금 마주앉은 중년 여사의 新約全書에 있을 「죄는 죽음을 낳고」라는 「죄」와 같이 추상적인 것으로, 그런 추상적 원인이 「죽음」이라는 사실적 결과를 맺게 하는 것이 숙명이라면 우리는 그런 숙명 앞에 그저, 전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sup>8)</sup>

하얼빈으로 가는 것은 여옥을 만나기 위해서이지만 여옥을 만나지 못한다고 해도 문제될 것은 없다. 하얼빈에는 친구 이 군이 있고, 그를 만나 회포를 풀다거나 자신의 삶에 의욕과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아마도 이 정도가 명일의 처음 생각이었을 것이다.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든 간에 여옥을 만나는 일은 그의 하얼빈 행의 여러 목적 중 하나일 뿐이다. 그런데 결국 여옥을 만나게 되자 명일의 서사는 ‘건전하고 명랑한 여행기’가 아닌 ‘무섭고 침울한 숙명의 기록’으로 변하고 만 것이다.

그렇게 될 줄 알았다면, 어쩌면 명일은 이 여행을 떠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만큼 명일의 현 상황은 되는 대로 지켜보자는 식으로 무기력하고, 누구의 생에도 간여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그의 태도 또한 소극적이기 때문이다. 바람 좀 쐬어 보겠다는 호기심으로 떠난 여행 길에 한 여자의 죽음이라는 숙명적 비극이 그의 주위에서 일어났고, 그것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되지 않을 수 없었던 그의 처지야말로 난감하기 이를 데 없는데, 생각해 보니 여행의 시작인 열차 안에서부터 마음은 뒤숭숭하고 주변 분위기는 불안했다는 투의 이야기이다.

소설의 이후 전개는 명일의 눈에 비친 사건의 묘사와 요약 서술로 이루어진다. 1인칭 서술자 명일은 자신이 맞닥뜨린 상황을 독자에게 차례차례 전하는 동시에 방관도 개입도 아닌 애매한 줄타기를

8) 「심문」, 13면.

계속하는 자신을 지속적으로 보여준다. 죽음이라는 이야기의 결말은 인물들 간 관계로부터 비롯된 원인의 필연적 결과가 아니라 ‘숙명’이라는 의미로 서두에서부터 규정되어 있었다. 명일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으므로, 여옥의 죽음 앞에 그가 가지는 감정은 스스로의 행동에 대한 참회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한 여성의 안타깝고 서러운 운명에 대한 동정이 된다.

## 2) 출세한 시골 수재 희중과 무진행

『무진기행』의 희중 또한 『심문』의 명일과 마찬가지로 적극적으로거나 능동적인 성격과는 거리가 먼 인물이다. 소설의 시발점이기도 한 희중의 무진행은 주체적 선택이나 자각 때문이 아니었다. 타인의 권유에 떠밀리듯 행로를 결정하는 태도는 『심문』의 명일과 꼭 닮았다.

“당신 안색이 아주 나빠져서 큰일났어요. 어머님의 산소에 다녀온다는 핑계를 대고 무진에 며칠 동안 계시다가 오세요. 주주총회에서 일은 아버지하고 저하고 다 꾸며 놓을게요. 당신은 오랜만에 신선한 공기를 쐬고 그리고 돌아와 보면 대회 생제약회사의 전무님이 되어 있을 게 아니에요?”라고. 며칠 전 날 밤, 아내가 나의 파자마 깃을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나에게 진심에서 나온 권유를 했을 때 가기 싫은 심부름을 억지로 갈 때 아이들이 불평을 하듯이 내가 몇 마디 입안엿소리로 투덜댄 것도 무진에서는 항상 자신을 상실하지 않을 수 없었던 과거의 경험에 의한 조건반사였다.

내가 나이가 좀 든 뒤로 무진에 간 것은 몇 차례 되지 않았지만 그 몇 차례 되지 않은 무진행이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는 서울에서의 실패로부터 도망해야 할 때거나 하여튼 무언가 새 출발이 필요한 때였었다. 새출발이 필요할 때 무진으로 간다는 그것은 우연이 결코 아니었고 그렇다고 무진에 가면 내게 새로운 용기라든가 새로운 계획이 술술 나오기 때문도 아니었었

다.<sup>9)</sup>

아내의 권유로 회중은 무진에 간다. ‘회사의 전무가 되는’ 신상의 중요한 일과 관련되어 있음에도 회중은 그것이 마치 남의 일인 양 귀찮은 심부름을 앞둔 어린아이처럼 투덜거린다. 그간의 무진행이 늘 ‘새 출발’과 필연적으로 얽혀 있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못해 수용하듯 하는 회중의 태도는 이번에도 피동적이고 소극적이다. 결국은 가야 하고 가게 될 것을 알면서도 그 행동의 책임을 주변에 떠넘기는, 어쩌면 지극히 철없고 의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다.

“내가 긴장을 풀어 버릴 수 있는, 아니 풀어 버릴 수밖에 없는 곳을 무진으로 정해 준 것은 대단히 영리한 것이었다.”<sup>10)</sup>는 서두 부분 화자의 서술에는 무진으로 향하는 결정이 결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무진에서의 긴장 풀린 언행 또한 무의식적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라는 변명이 배어 있다. 무의식이라는 관념을 피바르게 이용하는 화자의 의식 그 자체가 영리하다면 영리한 것이다. 이 또한 『심문』의 명일이 숙명을 운운한 것처럼, 작품 결말의 무기력하거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암시라고 판단할 수 있다.

『심문』의 명일이 여옥을 만날 것으로 짐작하고 하얼빈으로 간 것과는 달리 『무진기행』의 회중은 무진으로 향하는 동안 인숙의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다. 그러나 『심문』이 ‘명일과 관련이 깊은’ 여옥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무진기행』 또한 두 사람의 첫 만남에서부터 일찌감치 ‘회중과 관련이 깊은’ ‘인숙의 이야기’로 전개되는 수순을 밟는다.

9) 김승옥, 『무진기행』, 『한국소설문학대계 45』, 동아출판사, 1995, 155-156면. 이하 『무진기행』의 작품 인용은 작품명과 해당 지면의 페이지 수만을 적는다.

10) 『무진기행』, 158-159면.

다리가 끝나는 바로 거기에서부터, 그 여자가 정말 무서워서 떠는 듯한 목소리로 내게 바래다주기를 청했던 바로 그때부터 나는 그 여자가 내 생애 속에 끼여든 것을 느꼈다.<sup>11)</sup>

예전에는 몰랐던 여자가 처음 만난 날부터 자신의 생애 속에 이미 끼여든 것을 느꼈다는 회중의 속말은 며칠 되지 않는 체류기간을 감안할 때 대단히 선부른 것처럼 보인다. 자신은 가만히 있는데 문득 끼여든 존재로서의 인숙을 어쩔 수 없다는 태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작품 말미까지 계속되는 ‘책임/무책임’의 이항대립과 맞물려 회중의 혼란스러운 의식을 반영한다. 무턱대고 사랑할 수도,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대상으로서의 인숙은 회중에게 긍정할 수도 부정할 수도 없는 무진과 마찬가지로의 존재다.

“무작정 서울에만 가면 어떻게 할 작정이요?” 내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오빠가 있는데 어떻게 해주겠지요” 여자는 나를 쳐다보며 방긋 웃었다. “신랑감이야 수두룩하긴 하지만…… 서울보다는 고향에 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고향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그럼 여기에 그대로 있는 게……” “아이, 선생님, 절 데리고 가시잖을 작정이시군요.” 여자는 울상을 지으며 내 손을 뿌리쳤다. 사실 나는 나 자신을 알 수 없었다. 사실 나는 감상(感傷)이나 연민으로써 세상을 향하고 서는 나이도 지난 것이다. 사실 나는, 몇 시간 전에 조가 얘기했듯이 ‘뺨이 좋고 돈 많은 과부’를 만난 것을 반드시 바랐던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것이다.<sup>12)</sup>

회중은 무진에서 그곳의 사람들에게 질투를 불러일으킬 만한, 예외적인 존재다. 그들이 선망하는 공간인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바로 그 점이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된다. 그러나 서울의 회중은

11) 『무진기행』, 166-167면.

12) 『무진기행』, 175면.

돈 많고 백 좋은 과부를 아내로 가진, 운 좋은 시골출신의 사내일 뿐이다. 이러한 조건이 양쪽의 공간에서 희중을 소외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숙에게만큼은 희중이라는 존재가 특별할 수밖에 없다. 인숙은 희중을 서울 사람으로, 서울로 자신을 데려다 줄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으로 여긴다.

희중이 인숙을 통해 확인하는 것은 무진과 서울의 공간적 위계이다. 첫 만남 당시 인숙에게 느낀 친밀감의 정도를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희중이 무진을 벗어나려는 인숙에게 양자 중 어느 쪽을 분명히 권면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자신 또한 양쪽의 공간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문』의 명일이 죽은 아내와 산 여옥을 조선 및 만주라는 공간에 투영하여 비교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무진기행』의 희중은 아내와 인숙에게 투영된 서울과 무진을 견주어 보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심문』의 명일이 퇴폐와 향락의 도시 하얼빈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도 조선에 정을 붙이지 못하는 것처럼<sup>13)</sup> 『무진기행』의 희중 또한 서울과 무진 양쪽 모두에서 소외된 외로운 존재라는 사실이다.

단적으로 말하자면 『심문』의 명일이 ‘자신과 너무도 관련이 깊은 사건’에 붙들리고도 소극적인 행동으로 일관하고, 『무진기행』의 희중이 ‘자신의 생애 속에 한 여인이 끼어든 것’을 알아채고도 책임지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만주와 조선, 무진과 서울을 등거리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두 작가의 의도적 설정 때문으로 보인다. 인물의 피동적 상황 인식과 소극적 행동 양식은 결과적으로 운명적 공간

13) 『심문』의 명일이 조선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방랑길을 떠나게 된 것은 처 혜숙의 죽음 때문이다. 죽은 아내의 공간인 조선을 떠나 여옥의 공간인 만주를 찾아가는 명일의 행동은 만주라는 새로운 공간에 조선을 방불케 하는 제2의 고향을 건설하여 정착하려 했던 식민지 조선인들의 사정과 오버랩된다. (최성운,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 『현대소설연구』 55, 2014, 161면 참조)

으로서의 만주와 무진을 감정이입 없이 냉정하게 파악하기 위한 서사적 장치인 셈이다.

### 3. 일탈의 공간 속에서 재현되는 숙명

#### 1) 유행가 난장 위의 프리마돈나 인숙

『무진기행』의 ‘인숙’은 1인칭 서술자 ‘희중’에게 과거의 자아를 환기시키는 인물이다. “당신은 제 자신이기 때문에 적어도 제가 어렵겠이나마 사랑하고 있는 옛날의 저의 모습이기 때문”<sup>14)</sup>에 사랑한다는 작품 결말의 부치지 못한 편지 구절은 진심의 토로에 가깝다고 여겨진다. 희중이 무진에서 인숙을 처음 만나게 된 것은 그야말로 우연한 자리에서였다.

여선생은 ‘목포의 눈물’을 부르고 있었다. ‘어떤 갠 날’과 ‘목포의 눈물’ 사이에는 얼마큼의 유사성이 있을까? 무엇이 저 아리아들로써 길들여진 성대에서 유행가를 나오게 하고 있을까? 그 여자가 부르는 ‘목포의 눈물’에는 작부(酌婦)들이 부르는 그것에서 들을 수 있는 것과 같은 꺾임이 없었고, 대체로 유행가를 살려 주는 목소리의 갈라짐이 없었고 흔히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이 없었다. 그 여자의 ‘목포의 눈물’은 이미 유행가가 아니었다. 그렇다고 ‘나비부인’ 중의 아리아는 더욱 아니었다. 그것은 이전에는 없었던 어떤 새로운 양식의 노래였다. 그 양식은 유행가가 내용으로 하는 청승맞음과는 다른 좀더 무자비한 청승맞음을 포함하고 있었고 ‘어떤 갠 날’의 그 절규보다도 훨씬 높은 옥타브의 절규를 포함하고 있었고, 그 양식에는 머리를 풀어헤친 광녀(狂女)의 냉소가 스며 있었고 무

14) 『무진기행』, 180면.

엇보다도 시체가 썩어가는 듯한 무진의 그 냄새가 스며 있었다.<sup>15)</sup>

세무서장 조 군의 집에 벌어진 술자리에서 인숙은 언뜻 보아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끼어 있었다. 성악을 전공한 음악 선생이라는 그의 이력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무엇보다 인숙은 외지인인 데다 무진에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인 것이다. 그런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인숙의 어울리지 않는 노래를 들으며 희중은 무자비한 청승맞음과 서늘한 광기와 시체가 썩는 듯한 무진의 냄새를 느낀다. 희중 스스로 무진의 초입부터 반복적으로 만나 온 불온한 광경과 불길한 기운은 이 순간 인숙의 이미지와 겹쳐져 독자에게 각인된다.

“클래식을 부를 장소가 있고 유행가를 부를 장소가 따로 있다는 것뿐이겠지. 뭐 딱할 거까지야 있나?”<sup>16)</sup>

여성 인물 인숙의 입장에서 ‘클래식을 부를 장소’란 서울일 것이며, ‘유행가를 부를 장소’는 무진일 것이다. 인숙이 부르고 싶은 노래는 단연 클래식일 것이며, 그가 회구하는 삶의 모습은 ‘클래식을 부르며 지낼 수 있는 서울에서의 일상’ 정도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말 그대로 희망사항일 뿐 인숙이 처한 현실은 술자리에서 청승맞게 유행가를 부르는 무진에서의 나날이고, 언제 깨어날지 알 수 없는 막막한 악몽 속과 같다.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유행가를 부르는 동안 인숙이 경험한 것은 정체성의 혼란이었을 것이다. 또한 자신이 그토록 열망하는, 클래식을 부르는 삶을 성취하는 일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조급함일 것이다. 인숙이 생각한 자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최선의

15) 『무진기행』, 165면.

16) 『무진기행』, 166면.

방법은 거소를 옮기는 것이며, 이는 공간이 인간의 삶의 모습을 좌우한다는, 근거가 박약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면에서는 회중의 생각도 그리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다. 서울에서의 회중과 무진에서의 회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서울과 무진이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며 자아의 인식과 행동 양식은 공간에 의해 규제되고 피동적으로 결정된다고 믿는 것으로 보아 알 수 있다.

문제는 인숙의 거소 이동 즉 무진에서의 탈출이 자력에 의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이다. 인숙은 자신을 무진으로부터 이끌어내 줄 유력한 조력자로 회중을 떠올리고 있다. 그러나 회중은 언뜻 보기에도 적극적으로 행동할 만한 성격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인숙의 희망은 애초부터 배반될 가능성이 짙다고 보아야 한다.

서울로만 가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고 믿는 인숙의 생각 또한 그야말로 허구이거나 몽상일 수 있다. 애초부터 서울로 가는 것, 무진을 탈출하는 것 자체도 어려운 일인 데다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달라진 삶일 텐데, 서울에 거주한다는 하나의 조건이 다른 모든 것을 충족시켜 줄 리 만무한 것이다. 회중의 경우 돈 많은 처가라는 든든한 배후를 가지고 있지만, 인숙에게는 그러한 것이 전무하다. 만약 인숙이 회중이라는 대상을 두고 자신을 뒷받침해 줄 지속적인 조력자로 여기는 것이라면 문제는 복잡해진다. 회중이 그 역할을 담당하려면 아내라는 자신의 배후를 잃을 위험에 처할 수 있고, 그렇다면 회중이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한 조력자 하나가 아닌 서울에서의 안정적 삶 전부일 터이다. 돈도 뺏도 없는 회중이 인숙을 온전히 뒷받침해 줄 만한 힘을 가지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인숙의 욕망은 표면적으로 회중을 향해 있는 것처럼 보이나 회중은 서울이라는 근본적인 욕망의 대상을 매개하는 존재에 불과하다.<sup>17)</sup> 이때 인숙이 욕망하는 서울이라는 대상 또한 자신이 꿈꾸는

17) 르네 지라르의 '매개적 욕망'이나 '욕망의 삼각형', 자끄 라캉의 '타자의 욕망' 등

이상적인 삶이라는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을 매개하는 존재일 뿐이다. 즉 인숙은 희중이라는 통로로 서울을 욕망하고 서울을 통해 다른 삶을 욕망한다. 인숙의 욕망이 이처럼 복잡한 경로의 방향성을 지닐수록 그것의 좌절은 필연적인 숙명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욕망의 허구적 구조를 자각하는 순간 드러나는 것은 생생하도록 차가운 현실이 부여하는 환멸의 감정이다.

한참 후에 여자가 말했다. “선생님, 저 서울에 가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자의 손을 달라고 하여 잡았다. 나는 그 손을 힘을 주어 쥐면서 말했다. “우리 서로 거짓말은 하지 말기로 해.” “거짓말이 아니에요.” 여자는 빙긋 웃으면서 말했다. “어떤 갠 날’을 불러 드릴게요.” “그렇지만 오늘은 흐린 걸.” 나는 ‘어떤 갠 날’의 그 이별을 생각하며 말했다.<sup>18)</sup>

주지하다시피 ‘어떤 갠 날’은 오페라 “나비부인”의 아리아이다. 인숙은 ‘어떤 갠 날’을 부르며 핀커튼이 돌아오기를 고대하던 초초상의 심정에 감정이입을 하고 있었지만, 초초상의 숙명과 오페라 “나비부인”의 비극적 결말은 미처 떠올리지 못했거나 애써 외면하려 했던 것일지 모른다. 그를 “나비부인”의 1960년대 한국적 화신이라 할 수 있다면, 독자가 예상할 수 있는 『무진기행』의 후일담은 꼭 그만큼 비극적인 것이다.

의 이론을 끌어들이 분석할 수 있는 인물 구도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본 논문은 문학이론에 근거하여 대상을 설명하기보다 두 작품을 비교하고 각 작품의 시대 상황과 결부시키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외서 및 번역서를 인용하고 이론을 인용하는 등의 서술은 할애하기로 한다.

18) 『무진기행』, 178면.

## 2) 인정극 무대 위의 히로인 여옥

“나비부인”의 초초상처럼 자신을 현재의 거주공간에서 이끌어내 줄 조력자를 기다리는 여성 인물은 『무진기행』보다 25년가량 앞서 발표된 1930년대 작품 『심문』에도 나타난다. 20세기 전반 일본은 물론 세계 각지에서 흥행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1930년대 조선에서도 공연된 바 있다.<sup>19)</sup> 제국주의 서구 열강의 위력 하에서 힘없는 동양 여인의 비극적 운명이 속수무책으로 결정되어 버리는, 말 그대로 헛된 기다림의 이야기는 어찌면 1930년대의 상황에서 일본보다는 조선의 관객들에게 더 진한 심정적 공명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나비부인”의 서사에 익숙한 당대의 독자<sup>20)</sup>라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 무엇도 바꿀 수 없어 자신을 구원해 줄 조력자를 기다리는 여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어렵잖게 초초상의 그림자를 떠올렸을 것이다.

『무진기행』이 ‘어떤 낯 날’이라는 노래로 “나비부인”과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면, 『심문』과 “나비부인”의 상호텍스트성을 뚜렷이 매개하는 것은 가수 ‘미우라’의 형상이다. 작품 초반에 명일이 기차에서 우연히 만난 일본인 중년 여성을 통해 미우라의 존재를 환기시킨 후, 미우라의 이미지에서 “나비부인”의 초초상을, 다시 여옥의 모습을 독자로 하여금 연쇄적으로 떠올리도록 하려는 작가의 의도를 엿

19) “특히 “일본의 나비부인” 가수로 유명한 소프라노 미우라 다마키는 1937년 5월 18일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전 4막을 부민관에서 모두 공연함으로써 조선에서는 처음으로 오페라를 경성의 청중에게 선보이면서, 일본의 음악문화수준을 과시하였다.” 이경분, 『일제시기 서양음악문화와 일본인의 영향』, 『음악논단』 25, 2011, 168면.

20) 1930년대 당시 오페라 공연을 관람하는 등 클래식 음악을 향유할 수 있었던 조선인의 수는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클래식 음악에 조예가 있는 당시의 엘리트들이란 동시에 본격소설 등 근대 문예에도 관심이 깊은 상대적 고학력 계층이었을 것이다.

볼 수 있다.

하얼빈에서 여옥은 “삼류 사류 카바레의 댄서”<sup>21)</sup>로 일하고 있다. 게다가 여옥은 모르핀 중독자이며, 과거 동경 시절의 연인이었던 현혁에 의해 철저히 구속되어 조롱 속의 새처럼 살아간다. 하얼빈을 방문한 명일을 마치 우연인 것처럼 만나게 되자 여옥은 곧 하얼빈을 떠날 계획을 세운다. 여옥에게 하얼빈은 술과 마약과 퇴폐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패배자들의 공간일 뿐이다.

“중독자에게서 혼이 볼수있는 몰염치한 생각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잠시 손을 내밀어 준다면 如玉이는 내손을 붓잡아 의지하고 지금의 생활에서 자기를 건져내고 싶다는 것이다.

“제가 중독자의 몰염치로 이런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여옥이는 또 이런말을 앞세우고, 아직 자기의 몰염치를 자각할수있고, 애써 자기를 건져야겠다는 의지가 남아있는 이때를 놓지면 영 자기는 폐인이 되고 말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인다.<sup>22)</sup>

“지금의 생활에서 자기를 건져내고 싶다”는 여옥이 명일에게 밝힌 제1의 방안은 거주 공간의 이동이다. “무엇보다 저는 이곳을 떠나야 해요. …… 할수만있으면 저를 다리시구 조선으로 나가 주셨으면 합니다.”<sup>23)</sup>고 간청하는 여옥의 말은 하얼빈에서의 탈출과 이어지는 조선행이 자신의 삶을 바꾸는 방법이 되리라는 희망을 내포하고 있다.

如玉이는 장차 어떻게되는가, 어떻게 할셈인가, 정말 나를

21) 『심문』, 14면.

22) 『심문』, 31면.

23) 『심문』, 32면.

따라 조선으로 나가는가, 내가 다리고 가는가, 나가면 어떻게 하나, 우선 입원식힐밖에 없다. 그래 완인이 되면? 그 후의如玉이는 또 어떤 길을 밟게 될까? 혹시 또 나와! 그렇게 될지도 모른다. 사람의 일이라니 알 수 있드라구<sup>24)</sup>

여옥에게 하얼빈이 현혁으로 대표된다면 조선은 명일로 대표되는 공간이다. 현혁을 매개로 하얼빈이라는 거주 공간을 택했던 여옥의 삶은 자신이 가졌던 이상과는 전혀 동떨어진 성격의 것이었고, 이에 따라 다시 명일을 매개로 한 조선행과 그것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삶을 꿈꾸게 된 것이다. 『무진기행』의 인숙이 회중을 매개로 서울행을 기도하고 그것을 통해 이상적인 생활을 꿈꾸는 것과 마찬가지로의 연쇄적 도식이다. 그러나 동시에 명일에게는 만주라는 공간이 여옥으로 대표되고, 조선은 죽은 처 해숙의 공간으로 자리매김 되어 있다. 따라서 여옥이 명일을 따라 조선으로 간다 해도 그의 마음이 의지할 자리는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sup>25)</sup> 과거부터 여옥이 명일에게 온전히 마음을 주지 못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결국 『심문』의 여옥 또한 자신의 욕망을 실현시키지 못한 채 절망하고 만다. 그것은 필시 자신이 지닌 욕망이 허구적 연쇄 구도에 기초한 것임을 자각한 결과일 것이며, 작품 내 여옥의 서사는 환멸감을 이겨내지 못하여 자살하고 마는 필연적 결구로 수렴된다.

그렇다고 저의 지금 병(중독)을 꺾은대짜 다시 맑아진 새정신으로 보게될 세상은 생소하고 광막하기만하여 저는 더욱 외로울것만 같습니다. 갱생을 꿈꾸든것도 한때의 흥분인듯 하올시다. 지금 무엇을 숨기오리까. 요사한 말씀이오나 저는 선생

24) 『심문』, 46면.

25) 『심문』의 인물 구도와 각 인물이 공간의 성격과 대응하는 양상은 최성윤,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현대소설연구』 55, 2014, 153-176면)을 참조.

님의 심정을 완전히 붓잡을 수없음을 슬퍼 하면서도 선생님을  
 잊으려고 노력 할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이제 다시  
 선생님을 따라가 완인이된대짜, 제 앞에 무슨 희망이 있을  
 것입니까 -. 내내  
 선생님 기체 만강하시옵소서.<sup>26)</sup>

작가에 의해 화자로 하여금 작품 서두부터 예견케 한 인정극 여  
 주인공의 비극적 숙명은 위에 인용된 편지(유서)로 결말을 맺는다.  
 완인이 되어 새로 사는 삶은 애초부터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 “깡생  
 을 위하여 따라나서기보다, 이렇게 죽어가는 것이 如玉이의 如玉이  
 다운 운명이라고도 생각하였다.”<sup>27)</sup>는 명일의 속말은 『무진기행』의  
 결말에서 회중이 느낀 ‘부끄러움’처럼 무책임한 언사의 전형으로 보  
 인다. 그러나 그리도 무정하게 여옥의 심정을 받아들여 주지 못한  
 명일의 처지는 만주 이민의 생활난을 구제해 줄 수 없는, 귀국을 하  
 더라도 책임져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조선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읽힐 수 있다.

달리 말해 명일의 우유부단하고 소극적인 성격은 무력함에서 기  
 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여옥의 인당을 들여다보면서 먼  
 저 세상을 떠난 아내 혜숙을 보는 듯 반가워하고, 죽어 가는 여옥의  
 심정을 끝내 받아들이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함이나 후회보다는 서  
 러움을 느끼는 명일의 심리는 백성에게 아무 힘이 되어 주지 못하는  
 조선의 마음을 의인화한 것이다.

“죄는 죽음을 낳고……” 운운한 작품 서두의 성경 구절 인용을 다  
 시 떠올려 보면 여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죄란 식민지 백성으로 태  
 어난 원죄일 밖에 없다. 새 삶을 향한 헛된 기대와 열망을 배반당한  
 나비부인의 환생이다. 새로운 나비부인의 운명을 위에서 내려다보듯

26) 『심문』, 49면.

27) 『심문』, 49면.

스테이크를 먹는, 미우라를 닮은 일본인 부인의 위치에서 식민 본국의 지위를 읽을 수 있다. 만주든 조선이든, 오룡배의 유한계급이든 부두의 쿨리든 하얼빈 카바레의 무희들이든 그 모든 운명들을 블랙홀처럼 삼켜버릴 수 있는, 제가꿈 한 터치의 오일로 동북이라는 캔버스에 점찍을 수 있는 최상위 포식자의 위치이다.

#### 4. 결론

여옥이나 인숙처럼 작중의 현실을 고통스럽게 견뎌내고 있는 인물이 또 다른 삶, 더 나은 삶을 꿈꾸는 것은 자연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물들이 결국 좌절하고 마는 소설의 결말은 당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현실 인식에 기인한다고 할 것이다.

『심문』과 『무진기행』의 여주인공들이 마주한 고통스러운 현실은 각각 만주와 무진이라는 특정한 공간에 결부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들에게 만주와 무진은 벗어나야 할 땅이며, 대안적 공간은 조선과 서울로 제시된다. 이에 필연적으로 만주와 조선, 무진과 서울은 위계적 질서 하에 놓인다.

1930년대 이민자가 처한 상황에서 본국으로의 귀환을 꿈꾸는 것이나, 1960년대 시골 사람들의 서울 지향은 그리 특이한 것이 아닌, 보편적인 현상이었다 할 만하다. 그러나 각 작품의 작가들은 여주인공의 좌절이라는 결말 구조를 통해 현 거주 공간으로부터의 탈출과 새로운 공간으로의 이주 의지가 삶을 바꾸는 방안이 될 수 없음을 암시한다. 당대의 일반적인 현실 인식에 대한 서사적 반성인 셈이다. 두 작품은 경계인적 성격의 소극적 남성 서술자를 내세웠다. 양쪽의 공간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비극적 운명에 개입하는 대신 전략과 좌절의 과정을 냉정하게 관찰하는 역할을 부여하기 위

해서이다.

서술자의 관찰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여주인공이 지닌 욕망의 허구성이다. 여옥과 인숙은 명일과 희중을 통해 조선과 서울을 욕망한다. 그러나 명일과 희중이라는 잠재적 구원자는 물론 조선이나 서울이라는 대안적 공간도 모두 ‘지금과는 다른 삶’이라는 궁극적인 욕망의 대상을 매개하는 존재일 뿐이다. 자신을 구원해 줄 남성도 새로운 거주 공간도 다른 삶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극은 필연적인 숙명이 된다.

『무진기행』이 보여 주는 인숙의 절망은 당대 우리 국민의 집단무의식에 가까운 서울 지향의 욕망에 대해 재고하고 성찰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비하면 『심문』의 여옥이 받아들여야 했던 비극적 숙명은 동북아 질서의 일부분에 불과한 만주와 조선의 이항대립적 인식이 좁은 시야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게 한다. 식민 본국인 일본을 포함하여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만주와 조선의 비대칭적 위계는 무의미해 보이는 것이다.

이처럼 『심문』과 『무진기행』이 보여 주는 유사성은 남성 인물의 성격이나 여로 구조, 여성 인물의 좌절 등 작품 내 서사적 요소에 머무르지 않는다. 소설의 배경이 되는 공간의 상징성과 두 작품에 공히 나타나는 지역성의 배타적 위계 구도는 당대 현실을 바라보는 작가의 시선을 유추할 수 있도록 해 준다. 마지막으로 두 작품에 공히 나타나는, 오페라 “나비부인”의 초초상을 떠올리게 하는 여성 인물의 딱한 처지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이는 당대를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의 기대와 욕망이 차가운 현실과 만나는 지점을 명징하게 보여주는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 참고문헌 ■

- 김현, 「구원의 문학과 개인주의」, 『현대 한국문학의 이론/사회와 윤리』, 문학  
과지성사, 1991, 383-402면.
- 명형대, 「무진기행의 환상적 공간구조」, 『한국문학논총』 3, 1980, 221-243면.
- 박산향, 「『무진기행』의 체험공간과 장소정체성」, 『한어문교육』 32, 2015,  
139-158면.
- 신형철, 「여성을 여행하(지 않)는 문학 - 『무진기행』의 정신분석적 읽기」, 『한  
국근대문학연구』 5-2, 2004, 199-238면.
- 오윤호, 「『심문』과 『무진기행』에 나타난 ‘남성 인물의 내적독백’ 연구」, 『한국  
문학이론과비평』 15, 2002, 276-303면.
- 이경분, 「일제시기 서양음악문화와 일본인의 영향」, 『음악논단』 25, 2011,  
159-186면.
- 이상만,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 본 이면사(40) 첫 오페라 무대 ‘나비부인’  
」, 『경향신문』, 1986.8.7.
- 정종현, 「근대문학에 나타난 ‘만주’ 표상 - ‘만주국’ 건국 이후의 소설을 중심  
으로」, 『한국문학연구』 28, 2005, 229-259면.
- 정호웅, 「한국 현대소설과 만주공간」, 『문학교육학』 7, 2001, 171-196면.
- 최성윤, 「소설 교육과 텍스트의 계보 - 『패배자의 무덤』과 『별사』 함께 읽기」,  
『현대문학이론연구』 54, 2013, 353-373면.
- 최성윤, 「최명익, 『심문』의 인물 형상화와 만주 인식의 상관성 고찰」, 『현대소  
설연구』 55, 2014, 153-176면.
- 황국명, 「여료형소설의 지형학적 논리와 『무진기행』」, 『한국현대소설과 서사  
전략』, 세종출판사, 2004, 152-179면.

<Abstract>

The Destiny of Female Characters and  
the Space Hierarchy in Korean Modern Novels  
—A Comparative Study of *Sim-mun* and  
*Mujingihaeng*—

Choi, Sung-Yun

This thesis compares *Sim-mun*(1939) by Choi, Myeong-Ik with *Mujingihaeng*(1964) by Kim, Seung-Ok. By comparison, I tried to examine the personality of narrators, the destiny of female characters and the space hierarchy in Korean modern novels. More specifically, I tried to make clear genealogy of two texts on the basis of common elements.

These two works put up a passive man with marginal personality as a narrator in order to compare two spaces objectively and to observe the process of downfall and frustration coolly instead of intervening in female character's tragic fate.

Such a narrator reveal the falsehood of female character's desire. Yeo-Ok and In-Sook desire Chosun and Seoul through Myeong-II and Hee-Joong. But not only male character but also alternative space serve as a medium of the final desire, new life. That is the why *Sim-mun* and *Mujingihaeng* are destined to be tragedies reminiscent of *Madame Butterfly*.

Despair of In-Sook in *Mujingihaeng* makes readers reconsider and

reflect on our Seoul-oriented desire similar to collective unconscious. On the other hand, tragic destiny of Yeo-Ok in *Sim-mun* makes readers realize that such a binary relativistic perception originate from narrow view, because Manchuria and Chosun are only one part of Northeast Asian Order. In terms of macroscopic view, involving Japan, asymmetric hierarchy of Manchuria and Chosun seems to be insignificant.

Key words: Choi, Myeong-ik, Kim, Seung-Ok, *Sim-mun*, *Mujinghaeng*, *Madame Butterfly*, Space hierarchy, Genealogy of Text

투 고 일 : 2017년 8월 5일

심 사 일 : 2017년 8월 7일-9월 8일

게재확정일 : 2017년 9월 9일

수정마감일 : 2017년 9월 18일